

보도해명자료 (17.1.23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신고리 7·8호기 부지 고준위 방폐장 전용 우려”
(17.1.23, 부산일보)

1. 기사내용

- ☐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단지의 신고리 7·8호기 부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☐ 기장 신고리 7·8호기 부지가 고준위방폐장 부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름

* 신고리 7·8호기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(2013.2)에 반영된 바 있으나,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(2015.7)에는 건설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

- ① 정부는 동 기사가 언급한 부지를 고준위방폐장 부지로 검토한 바가 전혀 없음
- ② 정부는 고준위방폐장에 대해 특정 부지를 예단하지 않고 있음
- ③ 고준위방폐장 부지는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「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법(안)」에 (i)지자체장의 신청, (ii)지역주민 의사확인 등 필수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선정되도록 하고 있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박동일 과 장 (044-203-5340)
한주현 사무관 (044-203-5344)